



보도자료

보도일시
2022. 6. 2.(목)
배포 즉시

매 수	참고자료	사 진	담당부서 : 콘텐츠정책과 콘텐츠정책팀
2	○	○	과장 : 장우일 (031-8008-4610)
			팀장 : 김미숙 (031-8008-4680)
			담당 : 김중완 (031-8008-4664)

“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 결제 시 10% 환급”...도, 6월부터 소비지원금 지급

-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% 소비지원금 지급
 - 6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사람 누구나
 - 소비지원금은 지역화폐 가맹점 어디서든 사용가능

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6월부터 도내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%를 환급하는 ‘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사업’을 추진한다.

경기도는 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전국 최초로 지역서점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.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과 온라인서점, 서적 총판 업체를 제외한 도내 오프라인 지역서점 342개소가 현재 인증됐다. 이번 사업에는 도내 지역서점 중 지역화폐 가맹점인 280여개소가 참여한다.

소비자들은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에서 시·군별 지역화폐 결제금액의 10% (최대 3만 원)를 마일리지 형태의 해당 시·군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다. 기존 지역화폐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면 온라인·대형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한 셈이다.

다만 환급받은 소비지원금은 자동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 모바일앱에서 사용등록 처리하고 사용해야 해서 모바일앱을 꼭 확인해야 한다. 특히 지역화폐 운용사가 변경되는 김포시는 6월 14일부터 소비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며, 지역화폐 운용사가 다른 성남과 시흥시는 결제 1개월 이후 일괄 지급 예정이다. 소비지원금을 지급 후 3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

환수된다.

올해 처음 추진된 이번 사업은 연말까지 우선 진행하며,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. 도는 지역서점 이용자들이 지역화폐 가맹점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서점에 안내문을 비치했으며, 전체 가맹점 목록은 경기 콘텐츠진흥원 누리집(gcon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경기도 관계자는 “이번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사업을 통해 많은 도민이 책을 더 가까이 접하고, 지역서점이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경기도 인증 지역서점(342개소) 대상 지역화폐로 결제 시 해당 지역화폐 카드에 소비지원금 10% 페이백을 지급, 지역서점 이용 확대 및 도민의 책 읽는 문화 확산 유도

□ 사업개요

- (사업기간) 2022년 6월 1일(예정) ~ 2022년 12월 31일
 - *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
- (사업대상)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 342개소 중 지역화폐 가맹점*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사람 누구나
 - * 인증 지역서점이라고 해도 지역화폐 가맹점이 아니면 소비지원금 지급 불가
- (사업예산) 450,000천원 (도비 100%)
- (정책수당명) 지역서점 소비지원금
- (지급/사용방법)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 후 자동으로 해당 지역 카드에 마일리지 형식으로 적립, 모바일 어플에서 사용등록 후 사용
 - * 운용사가 조폐공사인 성남, 시흥은 사용 1개월 후 별도로 지급 예정
- (유효기간) 소비지원금 지급 후 3개월 이내 사용
- (한도금액) 시군별 개인에게 최대 3만원 한도 소비지원금 지급
- (사 용 처) 페이백 받은 소비지원금은 해당 시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 어디든 사용